

‘영산강 살리기’ 찬반 뜨거운 설전

■ 전남도지사 후보 첫 TV토론회

김대식 “환경과괴 아닌 복원” 박준영 “식수·농업용수 해결”

박용두 “친환경사업 전환율” 김경재 “재집권 위한 사업”

각 정당의 전남도지사 후보들이 첫 토론회를 하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6·2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후보초청 TV토론회’가 지난 24일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한나라당 김대식·민주당 박준영·민중노동당 박용두·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 발전 비전과 전략=김대식 후보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끝까지 인공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전남 중부권과 동부권, 서부권을 잇는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기업다운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현 정부와 소통이 되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후보는 6년간의 전남지사 경험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남도의 가장 큰 자원인 농축산업을 친환경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라며 “또한, 광주가 연구와 문화 중심 도시인 만큼 광주 근교에 첨단산업을 배치하고 전남 동부권은 물류와 신소재 산업, 중부권은 웰빙산업 등을 유치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두 후보는 “전남 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 농민, 서민을 뒤로하고는 전남도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업무추진비를 폐지해 예산을 도민에게 쓰고,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보장과 노동자 체임을 보장하는 등 서민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전남도를 동북아시아 초

일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해양상장보고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태평양시대의 물류, 교육,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찬반 ‘팽팽’=각 후보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팽팽한 신정전을 벌였다. 개인적인 견해가 틀러 ‘설전’도 오갔다.

김대식·박준영 후보는 “현재 영산강의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영산강을 살려 식수난과 농업용수를 해결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용두 후보는 “영산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후보는 “현 정권이 재집권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이라며 “영산강 정비사업은 찬성하지만, 생태에 맞게 해야 한다”고 박 후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대식 후보는 “환경과괴가 아니라 복원”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두 후보에게 대안 제

시를 요구하며 맞받아쳤다.

◇전남 농업 위기 해결 방안=박준영 후보는 친환경 농업과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한다. 동시에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두 후보는 “쌀 20만톤을 1년 동안 보관하는데 최소 600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북 쌀 지원을 강조했다.

김경재 후보는 “원칙적으로 대북 쌀 지원은 찬성하지만, 최근 대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북 쌀 지원에 앞서 서민에 전남도 직거래 장터를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생산량을 조절 및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대식 후보는 “쌀 대북지원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며 “초등생 무상급식 등을 통해 쌀 소비량을 늘리면 쌀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헌정에서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 영화감독 등이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서민·중산층 교육·복지개선”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민주당은 25일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생활밀착형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0대 핵심 공약으로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강화 ▲행정복합도시 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확대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인문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혁신형 자율초등학교 확대, 특목고·자사고의 혁신형자율학교 전환, 학교간 시설 개방과 시설 특화를 통한 ‘에듀클러스터’ 지정, 고교평준화 보완 등의 공약을 내놨다.

연필뉴스

친노인사들, 盧 묘소에 자서전 헌정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인사들이 지난 2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최근 발간한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등 책 4권을 헌정(獻呈)했다.

“운명이다”를 직접 정리한 유 전 장관은 이날 “잘 정리를 했는지 두려운 마음이 있

다”며 “참 멋진 분이셨다는 생각을 다시하며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기록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어서 창작한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있는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더 많이 이해받고 사랑받았

으면 하는 것이 정리한 사람으로서 소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정에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참배를 마치고 새롭게 공사중인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둘러본 뒤 사저에 있는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갖고 상경했다.

연필뉴스

■ 지방선거 핫코너

전주연-김선옥 ‘관권선거’ 의혹 공방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 25일 전주연·김선옥 후보가 공방을 벌였다.

전주연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 공천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경선실시를 촉구했다. 전 후보는 “당내 타 자치단체 유력 후보들도 현재 개인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지만 공천이 확정되거나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광주 서구의 경우 몇몇 구청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직 단체장 배제를 거론하며 경선을 실시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조속한 경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선옥 예비후보는 “당 지도부가 원칙과 순리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관권 선거 진상과 사태의 심각성,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등을 심사숙고한 뒤 공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후보자 및 당원들은 지도부의 고신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정동채 선거법위반 공방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의원 측과 정동채 후보 측은 25일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광주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 22일자 회신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순수하게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채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섭 의원이 제시한 선관위 질의 회신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실제 이 의원의 경선 준비 사무실이라는 명목으로 게시물을 설치하고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병완 ‘염주→노무현 체육관’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5일 “2002년 3·16 경선 돌풍을 일으켜 참여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연 염주체육관을 개보수해 ‘노무현기념 체육관’으로 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염주체육관이 노무현 기념체육관으로 리모델링 되면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함께 광주가 만든 위대한 두 대통령의 기념관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노무현기념체육관을 전시실과 학술세미나실 등을 갖춘 쾌적하고 의미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26일부터 투명한 선거자금조달과 지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병완 펀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택 “독거노인에 후대전환”

임택 국민참여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에 후대전환 무상 제공 및 기본요금 지원, 무상 급식 제공 등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강화하는 특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날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14.1%로 가장 높다”면서 “경로당복지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구청장이 되면 계속사업을 통해 동구 전 경로당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혜령 경선 무효 재심 청구

양혜령 민주당 광주 서의원(동구 제1선거구) 예비후보는 25일 “전남 치러진 예비후보 경선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이뤄져 원천무효인 만큼 광주시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동일한 집에 최소 2명 이상, 많게는 4명까지 선거인단으로 선정되는 등 58명의 불법 선거인단이 구성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경선결과 원인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리더스클럽 6.2 선거 (예비)후보자 필독!!

우리지역 (예비)후보자 검색

이젠!! 휴대전화로 하세요!!

SHOW NATE

02-2677-7116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음성 채팅의 지원

광주, 전남 최고!

전통적인 커뮤니티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미움과 마음을 이어주는 히트폰

1588-3533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미움과 마음을 이어주는 히트폰

전화정보(A/S) 사업자 모집 | 무제한, 무정도, 무요금, 무제한 | 010. 3608. 2888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벽진동 - 참고용지/500평정도
- 마르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집
- 중흥동 - 200평/대로집(100%대출가) 상담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집(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집(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 /대로집(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광산구 신웅동 - 1500평/50만원 도로집 (물류창고 적합)
- 만평 품암지구 수환지구
-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서구형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